

수석보좌관회의

회의 시작하기 이전에 요즘 상황 간결하게 한 두 마디하고 시작합니다. 정치와 정치권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흔들리면 국정혼란이 오고 민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거나 함께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실무적 정부와 청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국정을 방향을 잡아갑시다.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챙겨 나갑시다.

다음은 청와대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정치적 기능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정당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정부 형태로 보고 비서실도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말고 차분히 실무형 비서실로 움직이는 그런 비서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회의하면서 또 얘기합니다.